

◆ 북미

- 2007년도 캐나다 생명보험시장(개인) 판매채널별 분석
- 2007년 미국 생보시장 : 초회보험료 하락, 보유보험료 성장

◆ 유럽

- Aviva 1/4분기 실적 발표, 미국 및 아시아 시장 중심의 성장
- 영국의 Principle보험회사, 첫 이슬람보험회사로 사업 승인

◆ 일본

- 외국계 투자펀드, 일본 손보사에 투자 확대 지속
- 도쿄해상, 일본 최고의 정보 공유 시스템 본격 제공

◆ 중국

- 중국 대형열차사고 상업보험가입 전무
- 중국 보험회사 1/4분기, 전반적 수입증가 속 투자이익 감소

◆ 국제금융시장 주요 지표

【 North America Insurance Industry News 】

□ 2007년도 캐나다 생명보험시장(개인) 판매채널별 분석

- 2007년도 평균초회보험료는 전년에 비해 5% 포인트 상승함.
 - 주요 원인은 「전속설계사와 독립설계사」의 판매실적 증가인데, 전체 연평균초회보험료 중 이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61%로서(전년대비 2%p 증가) 2007년에 각각 30%와 31%를 차지함.
- 특히, 「전속 설계사 및 보험사」가 직접 판매한 연평균초회보험료는 전년에 비해 6% 포인트가 증가함.
 - 주요 원인은 변액상품에 주력한 결과로 해석되며,
 - 「전속설계사 채널」의 변액상품 초회보험료는 전년에 비해 12% 이상 증가함.
- 기타 판매채널 중 전년에 비해 초회보험료가 크게 증가한 채널은 「증권브로커 채널」로서 전년에 비해 14% 포인트 증가함.
- 계약건수를 살펴보면 「전속설계사와 독립설계사」가 2007년도 초회보험계약의 63%를 차지였고, 「기타금융기관채널」 및 「다이렉트마케팅채널」은 6%대로 전년대와 동일한 추세를 보임.
- 보험사가 이용하고 있는 판매채널 수를 살펴보면, 대략 절반에 해당하는 48%가 1개의 판매채널만을 이용함.
 - 2개 판매채널 이용이 26%, 3개 채널 이용이 5%, 4개 채널 이용이 16%를 차지함.
 - 중복응답조사시 「독립설계사 채널」이 53%로서 가장 많이 사용되었으며 「다이렉트마케팅채널」은 21%로서 8개 채널 중 다섯 번째를 차지함.

(LIMRA, 4/29)

□ 2007년 미국 생보시장 : 초회보험료 하락, 보유보험료 성장

- LIMRA는 미국생명보험시장의 약85%를 차지하는 32개 보험사를 대상으로 2007년도의 미국생명보험시장에 대한 실적을 발표함.
- 2004년~2006년 기간 중 평균초회보험료는 완만한 상승세를 보여준 반면, 2003년(전년대비 3%p 하락)과 2007년(전년대비 5%p 하락)에 하락세를 보임에 따라 2003년~2007년의 평균초회보험료는 0% 증가함.
- 그러나 2003~2007년의 보유보험료는 5%에 근접한 성장세를 기록하였으며, 2007년에는 전년대비 4% 성장함.
- 미국 생명보험시장을 회사별로 분석해 보면, 2007년의 평균초회보험료 하락은 대형사와 소형사보다는 중형사의 실적 하락이 크게 영향을 줌.
- 반면, 보유보험은 전반적인 실적이 상승함.
- 다만, 보유계약건수가 2006년에 비해 12% 증가한 것은 1개 생보사의 실적이 크게 증가한 것에 기인함(대다수 보험사의 계약건수는 4% 성장).
- 미국 생명보험시장을 담보별로 분석해 보면, 2007년 평균초회보험료의 하락은 전년에 비해 사망보험(2%p 하락)과 생존보험(22%p 하락) 모두 하락함으로써 발생함.
- 한편, 2007년 보유보험료의 상승은 생존보험(3%p 하락)의 하락 보다 사망보험(4%p 증가)의 상승폭이 컸던 것에 기인함.
- 2007년의 미국 생명보험시장은 초회보험료의 감소를 가져오는 등 연초에 예견된 바와 같이 도전적인 한 해였던 것으로 나타남.
- 고용의 하락, 물가 대비 임금 상승률하락, 유가·식품비 등 기초생활가격 상승, 소비자신뢰 하락 등이 예견되는 2008년은 미국보험시장에게 가장 힘든 한 해가 될 것으로 예상됨.

(LIMRA, 4/28)

【 Europe Insurance Industry News 】

□ Aviva 1/4분기 실적 발표, 미국 및 아시아시장 중심의 성장

- 세계 판매시장을 둔 Aviva 그룹의 1/4분기 실적은 9,400만 파운드로 전년 동기대비 2% 성장했으며, 생명보험과 연금 판매실적은 816만 파운드를 기록해 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이 같은 5% 성장은 미국과 아시아 시장의 성장에 기인한 것이며, 영국시장은 오히려 최근 몇 개월 동안 감소세를 보이면서 전년동기대비 3%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 반면, Aviva의 1/4분기 일반손해보험 시장에서는 유럽의 일반손해보험과 건강보험 중심으로 수입보험료가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반면, 경쟁이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 따라서, 영국은 일반손해보험의 사업모델을 바꾸기 위해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관리 중심의 언더라이팅과 비용 절감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고 밝힘.
- 그룹회장인 앤드류 모스(Andrew Moss)는 영국의 일반손해보험 시장은 지속적으로 경쟁 상태가 될 것이고, 이에 따라 우리는 수익성에 초점을 둔 보험상품 개발 및 업무처리 절차에 있어 복잡성을 줄이려 한다고 전함.
- 또한, 지난해 Aviva는 그룹차원의 중기적 관점에서 실행목표나 비용절감에 있어서 우수한 성과를 달성하였다고 전했으며, 현재 단기적으로는 시장의 불안정성이 보이지만, EU의 새로운 투명성 지침서에 따른 재무제표 강화 및 신중한 경영체제로 이러한 금융 환경의 혼란기를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전함.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 Insurance Times, 4/28)

□ 영국의 Principle 보험회사, 첫 이슬람보험회사로 사업 승인

- 영국의 principle 보험회사가 첫 독립 이슬람보험회사로 FSA의 사업 승인을 받게 되었으며, 샤리아(Sharia)원칙에 따른 자동차보험과 주택보험을 올해 말부터 영국시민에게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함.
- 현재 영국시장에 거주하는 무슬림의 수는 200백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영국에서 샤리아(Sharia)원칙*에 부합하는 보험상품은 처음인 것으로 나타남.

* 샤리아(Sharia)원칙이란 이슬람 경전 코란과 그 해설서 쁘인 Sunnah에 대한 해석 및 비평서로 무슬림의 생활법전이며, 샤리아의 원칙은 이자금지의 원칙, 불명확성 배제의 원칙(현금흐름 명확화), 도덕적 사회적 종교적 판단에 부합되는 금융거래 지원(도박, 술, 돼지고기유통 관련 금융거래 지원 금지)등의 내용임.

- Principle의 회장인 Abdulaziz Hamad Aljomaih에 따르면, 이 같은 본사의 사업을 시작으로 영국의 이슬람금융*에 대한 인식이 전환될 것이라고 믿고 있으며, 이슬람 율법에 따라 설립된 만큼 보다 합리적이고 수익성 있는 사업을 보여줄 것이라고 전함.

* 이슬람금융이란 전통적 금융상품인 대출, 채권, 예금 등은 이슬람금융의 대상이 아니며, 실물자산을 동반하는 자산리스, 무역금융, 프로젝트 금융, 지분투자 등이 주요 이슬람금융의 대상임.

- 이 같이 FSA의 인허가를 취득하게 됨으로써, Principle의 샤리아 금융상품은 공정한 상품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오늘날 국제금융 시장의 원칙에도 부합하는 보다 투명한 상품이 될 것이라는 입장임.
- 마지막으로 Principle의 Bradley Brandon Cross 대표는 영국의 전통적인 보험상품과 같은 이자수익이나 주주들의 수익 중심의 불명확성을 지닌 상품과는 무슬림의 원칙이 일치하지는 않지만, “이자”의 개념이 아닌 “수익 배당”의 개념으로 보다 경쟁력 있는 상품을 제공, 이를 통해 고객들의 본질적인 니즈에 보다 가까운 특별한 상품들을 제공할 것이라고 전함.

(Insuarance Times , 5/1)

□ 외국계 투자펀드, 일본 손보사에 투자 확대 지속

- 2007년 9월말부터 일본의 상위 6개 손해보험회사 중 손해보험재팬을 제외한 5개사에서 외국인 주식소유가 증가함.
 - 이는 외국계 투자펀드가 손해보험회사 주식 투자를 늘리고 있기 때문으로 외국인이 소유한 주식의 40%를 넘는 회사가 2개사로 늘어나는 등 향후 외국계 자본의 일본 진출이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됨.
- 2007년 9월 이후 외국인 주식소유 상승폭이 컸던 손보사는 미츠이스미토모로서 6개월 동안 6.5%p 상승하였고, 또한 손보사 중 외국인 지분율(47.3%)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미국계 투자펀드인 브란데스인베스트먼트파트너스가 미츠이스미토모해상그룹홀딩스의 주식을 12.8%를 보유함에 따라 외국인의 투자비율이 작년 12월말 대비 1.3%p 증가함.
- 기타 미국계 투자펀드가 니혼코아손해보험의 주식을 5.0%를 취득하는 등 외자계 펀드의 보험회사 투자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

<상위 6개 손해보험회사의 외국인 투자비율>

미래아 HD	38.8%(+0.5%)
손해보험재팬	36.8%(-2.2)
미츠이스미토모 해상	47.3%(+6.5%)
아이오이손해보험	26.8%(+0.5%)
니혼코아손해보험	43.1%(+0.6%)
닛세이 동화	17.0%(+1.1%)

*2008년 3월말 기준

(FujiSankei Business I 5/3)

□ 도쿄해상, 일본 최고의 정보 공유 시스템 본격 제공

- 도쿄해상니치도화재보험(이하 도쿄해상)은 4월 30일 동 회사 대리점과의 정보 공유·제공 시스템을 전면 교체한다고 발표함.
- 도쿄해상은 지금까지 대리점에 대해서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별도로 운용하고 있었으나, 사내에서 입수할 수 있는 정보와 대리점에 제공되는 정보의 사이에 격차가 있어 충분한 정보 공유를 하지 못했음.
- 도쿄해상이 도입하는 새로운 시스템은 사내와 대리점간 공동 시스템으로 동일 정보를 동일 시점에 입수할 수 있도록 구축하여 직원과 대리점간 커뮤니케이션의 확대를 지원함.
 - 시스템 구축은 일본 IBM이 담당하고, 리얼컴이 제공하는 정보 공유 패키지 제품 「Knowledge Market」를 대형 시스템 전용으로 사용할 예정임.
- 동시에 도쿄해상은 대리점을 위한 e러닝 시스템의 개선도 추진함. 대리점 시스템의 유저 약 40만명이 사용할 수 있는 구조를 구축하는 것과 동시에 동영상 전달 시스템을 새롭게 개발하였음.
 - 동영상이나 애니메이션을 활용한 정보 제공에 의해 보다 신속히 상품지식이나 판매 방법 등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함.
 - 시스템 구축에 있어서는 후지쓰를 메인 파트너로 하여 동 회사의 e러닝 시스템 「Internet Navigware」을 동영상 제공 서비스를 채택함.
- 양 시스템 모두 이미 도쿄해상의 사내 및 미래아홀딩스 각사에서 2007년 12월부터 시험운동을 하고 있음.
 - 2008년 5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실무에 투입하여 약 40만 유저의 이용에 게 일본 국내 최고의 정보 공유 및 e러닝 시스템을 제공할 예정임.

(@IT I 4/30)

【 China Insurance Industry News 】

□ 중국 대형열차사고 상업보험가입 전무

- 지난 4월 28일 새벽 4시 41분, 베이징(北京)에서 칭다오(靑島)로 향하던 T195호 열차가 산둥성 왕촌역 부근에서 선로를 이탈하면서 옌타이(煙臺)에서 쉬저우(徐州)로 향하던 제 5034호 열차와 충돌했으며, 사고로 71명이 사망하고 416명이 중경상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음.
 - 사고발생 직후 각 보험회사에 사고열차의 보험 가입여부를 문의했으나 아직까지 보험에 가입된 선례가 없다는 답변만이 나오고 있음.
- 중국 철도부는 오랫동안 정부 울타리 안에서만 관리돼 왔기 때문에 상업보험의 중요성을 실감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스스로 설립한 사고대비용 기금으로 열차보험을 대신하고 있을 정도로 보험에 문외한이었음.
 - 철도부의 자기책임 정책은 위험계수가 낮은 철도운송 부문이 상업보험에 개방될 경우 필요 이상의 보험료가 지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앞섰기 때문이며, 그 결과 수많은 인명과 재산을 실어 나르는 열차의 상업보험 가입기회는 원천적으로 차단돼 승객과 화물을 위험에 노출시킨 셈임.
- 한편, 철도부가 가입한 기금에 의하면, 열차에 타고 있던 승객에 대한 보상은 사망자 1인당 최대 10만 위안까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 그러나 아무리 참혹한 사고라 하더라도 가능한 빨리 아픔을 잊기 위해서는 부상자를 치료하고, 사망자의 원혼을 위로하며, 막힌 철도가 다시 개통 돼야 할 것이라는 의견임.

(중금재선 , 4/30)

□ 중국 보험회사 1/4분기, 전반적 수입증가 속 투자이익 감소

- 지난 4월 중순 중국태평양보험(中國太保), 중국생명(中國人壽)의 실적발표에 이어 30일에는 핑안보험그룹(中國平安集團)이 2008년도 1/4분기 실적을 발표함으로써, 중국 국내외 주식시장에 상장된 3개 보험사의 실적발표가 마무리 됨.
- 핑안보험의 1/4분기 실적보고서에 따르면, 총 수입보험료는 358억 위안(35% 증가)이며, 특히 손해보험 부분이 76억 위안으로 전년동기대비 42% 증가, 순이익은 49.6억 위안으로 전년동기대비 25.2% 증가하였음.
- 핑안보험의 이 같은 순익 증가는 지급준비금 하락에 기인하고 있으며, 1/4분기 지급준비금 납입액은 123억 위안으로 전체 수입보험료의 38%에 해당하는데 이는 전년동기대비 53.4%나 하락한 것이기 때문임.
- 핑안보험의 1/4분기 투자수익은 지난해 말 대비 소폭 증가했으나, 전년동기와 비교하면 크게 하락했고, 투자수익이 지난해 동기 대비 71%나 하락했는데, 이는 핑안보험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비중이 과도하게 높기 때문에 나타난 것임.
- 1/4분기 실적분석 결과를 보면, 보험회사의 단기위험이 대차대조표를 통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중국태평양보험의 1/4분기 실적은 투자수익, 영업외수익 증가와 함께 법인세 감소 덕을 톡톡히 봤으며, 영업외 수익은 지난해 200만 위안에서 금년1.25억 위안으로 증가, 법인세도 지난해 26% 에서 금년에 19%로 하락하였음.
- 이와 같은 현상이 중국생명, 중국핑안 등의 실적보고서에도 그대로 반영됨으로써, 보험회사의 단기실적 증가에도 불구하고 중장기 실적에 대한 불안감은 여전히 남아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금융시보, 5/1)

【 Financial Key Indicators 】

구분		07년말	08.4.18(금)	08.4.25(금)	08.5.02(금)	전주대비
금리 (%)	韓 국고채(3년)	5.74	4.98	4.94	4.90	-0.04
	美 10년국채	4.03	3.74	3.87	3.86	-0.01
	英 10년국채	4.51	4.71	4.78	4.74	-0.04
	日 10년국채	1.51	1.40	1.61	1.65	0.04
주가	韓 KOSPI	1,897.13	1,771.90	1,824.68	1,848.27	1.29%
	韓 KOSDAQ	704.23	643.75	654.70	655.80	0.17%
	美 DJIA	13,264.82	12,849.36	12,891.86	13,058.20	1.29%
	美 Nasdaq	2,652.28	2,402.97	2,422.93	2,476.99	2.23%
	英 FTSE	6,456.90	6,056.50	6,091.40	6,215.50	2.04%
	獨 DAX	8,067.32	6,843.08	6,896.58	7,043.23	2.13%
	佛 CAC40	5,614.08	4,961.69	4,978.21	5,069.71	1.84%
	日 Nikkei225	15,307.78	13,476.45	13,863.47	14,049.26	1.34%
	中 상해종합	5,261.56	3,094.67	3,557.74	3,693.11*	3.80%
	대만 가권	8,506.28	9,074.34	8,947.83	8,963.63	0.18%
환율	홍콩항셍	27,812.65	24,197.78	25,516.78	26,241.02	2.84%
	원/달러	938.20	1,000.80	995.80	1,002.60	6.80
	원/100엔	833.33	965.48	952.20	960.90	8.70
	엔/달러	112.58	104.42	104.10	104.34	0.24
	달러/유로	1.4722	1.5727	1.5651	15,476	15,474
	위안/달러	7.3041	6.9842	7.0100	6.9885	-0.02

*: 2008.4.30 기준